

### 우수교사가 신앙때문에 성추행 고문을 당해 가족이 해외에서 구조 요청



▲ 2022년 8월 15일, 파룬궁수련생 송치는 기자회견에서 아내 장용진이 받은 고문박해 과정을 상세히 폭로하고 중공에게 무조건적으로 장용진의 석방을 요구했다.

[밍후이왕] 길림성 길림시의 여교사 파룬궁 수련생 장용진(姜永芹)은 길림성 공안부 특수고문 전문가가 특별한 “도구”를 가동하여 그녀에게 성침해와 폭행을 가한 사건은 계속 주목을 받고있다. 2022년 8월 15일, 호주 파룬따파 학회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권에 강렬한 항의를 표시했다.

장용진의 남편, 파룬궁 수련생 송치(熊琦)와 두 딸은 박해를 피해 몇 년 전에 중국을 떠나 현재 멜버른에서 거주한다. 그들은 그날의 기자회견에 참가했고, 송치는 기자회견에서 아내가 받은 고문 박해를 상세하게 폭로했다.

#### ■ 우수 교사는 여러차례 중공에 의해 납치되고 불법감금 되다

장용진은 금년에 53 세이며 예전에는 절강리공대학(浙江理工大学)의 강사였다. 그는 1998년에 파룬따파를 수련한후 기계학원 기계전공에 관한 교학과 과학연구공작에서 성적이 뛰어나 수많은 상을 획득한 우수교사였다. 1999년 7월 20일, 강택민이 파룬궁에 대한 발광적인 탄압과 박해를 발동한 후 장용진은 여러차례 중공의 ‘610’, 국가 안전, 국가 보안, 경찰, 가도 위원회의 소란을 당했으며 그기간 또 불법 노동교양 3년 판결까지 받았었다. 2012년 3월에 석방되어 귀가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감시, 소란, 세뇌반에 납치 등 박해를 받았다. 2022년 6월 12일 장용진은 재차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했다. 처음에 가족은 그녀가 길림 룡탄(龙潭)분국 신안파출소에 감금된줄로 알

았으나 7월 21일 당국에서 내린 형사구류증명서를 보고서야 뒤늦게 그가 서란구치소에 감금됐음을 알았다.

#### ■ 비밀리에 감금되어 고문 도구로 고문 학대받고, 성폭행 당하다

“처음에 그녀는 호텔 102방에 갇혀 24시간 내내 감시받았습니다. 아마도 7월 8일 오후 쯤에 그들은 아내의 머리에 가리개를 씌우고 차에 태웠고, 양쪽에서 국보민경들이 아내의 팔을 누르고 비밀 심문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용진의 남편 송치는 심문지점에 도착하자 국보인원이 아내에게 하드디스크의 비밀번호를 대라고 요구했으나 아내는 거절했다고 전달했다.

당시 국보인원은 아내를 위협하며 “네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성의 전문가를 부를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이 좋을거야. 그는 평소에 사형법을 심사하는데 방법이 아주 많거든. 그는 우리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후 국보인원은 전화를 걸어 “전문가”를 불렀다. 이 소위 “전문가”는 길림성 공안청 특수 훈련실 성원이며 올때 상자 하나를 들고왔다.

송치는 말했다. “그들은 아내에게 들어 본적도 없는 ‘도구상자’ 고문을 실행했습니다. ‘도구상자’에는 이쑤시개, 기기, 약병, 최음제, 전선 등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희생자를 죽을 만큼 괴롭힐 수 있는 끔찍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4명의 남자가 내 아내의 고문에 가담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길림성 공안청 특수요원으로서, 한 명은 고문 ‘전문가’라 불리우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조수리(李) 모였습니다. 나머지 두명은 길림시 국보경찰 탕(唐) 모와 려(吕) 모 (2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였습니다.”

“폭행자는 아내의 코구멍에 겨자유를 뿌린후 불을 붙인 담배를 코에 밀어 넣었습니다. 비강에 밀어 넣은 담배는 타면서 두토막으로 부러져 아내의 비강에 남아있는 바람에 아내는 코물과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면서 아주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기침하면서 코로 들어간 담배 반토막을 입으로 뱉어냈습니다.”

“아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고문 전문가’는 길림시 국보 경찰을 지휘해 특별한 도구로 그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내가 생리 중인데도 티끌만한 인성도 없는 ‘전문가’는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두 시간 동안 아내를 괴롭혔고 아내는 당시 정신이 붕괴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고문혹형을 받은 그날 밤 경찰은 그녀를 신안 경찰서로 데려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21일, 그들은 아내를 서란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송치는 말했다. “‘전문가’는 고문 현장에서 또 만약 굴복하지 않는다면 ‘도구상자’를 남겼다가 매일 장수친에게 한번씩 당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도구상자’를 실행하는 심문은 다른 상대라면 일정

▼ 23년래 중공은 각종 변태적인 고문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사람을 놀래우는 박해수단은 이미 인류의 최저선을 넘어섰다.



한 제한이 있겠지만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중공은 이토록 사악하다

송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고문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때 마치 저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송치는 발언할때 목이 메어 말을 더듬었고, 수많은 관중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

송치는 당시 변호사 한테서 자신의 아내가 받은 각종박해 상황을 전해 듣고 그는 아주 분노했다고 말했다.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폭도를 만났을 때에야만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경찰이, 한 집법부문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정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행위입니다. 중공은 바로 이토록 사악합니다.”

6월 12일 아침, 장융친을 데려갈때 경찰은 동시에 3조 인원을 파견해 3곳을 수색했다. 수색증도 없이 공장도 찍히지 않은 종이 한장을 들고왔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수색이었다. 컴퓨터 2대와 핸드폰 몇 대를 수색해갔을 뿐만 아니라 장수친의 86세의 고령모친을 제외한 모든 가족, 심지어 8세 작은 딸 마저도 납치했다. 가족은 납치 당일에 모두 풀려났다.

■ “호주 정부는 중공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룬따파 수련생 마크 베이트먼 (Marc Bateman) 은 중공이 특별히 여성 수련생을 겨냥해서 널리 성폭력 고문 수단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문을 가하는 것은 중공 정권의 인권유린에 최저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파룬따파 수련생 마크 베이트먼 .

마크 베이트먼은 호주에서 강간범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강간범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민주사회에서는 경찰이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녕을 보장한다. 그러나 중공의 경찰은 공산당조직의 지시에 따라 양심수로 하여금 신앙, 자유와 자신의 성결한 인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마크 베이트먼은 중공은 반인류죄를 범했다고 표시하면서 그는 파룬궁 수련생을 대표해 세가지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중공은 즉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모든 형식의 고문을 중단할 것, 둘째, 즉시 장융친을 비롯한 기타 파룬궁 수련생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 셋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중공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질 것을 호소했다.

장융친의 남편 송치는 변호사를 위탁해 폭행한 자를 기소하고, 비참하게 부녀를 고문하고 참해하는 중공당국을 고소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 폐암에서 생존한 이야기

[밍후이왕] 암은 현대 의학이 극복해야 할 난제이다. 폐암은 가장 치명적인 암이지만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통해 빠르게 회복되었다. 다음은 파룬따파 수련을 통해 폐암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엔샤

## ■ 폐암 말기에서 완치된 어머니

파룬따파 수련생 우엔샤(吳豔霞) 씨는 천진 조경학교의 수석 강사였다. 중공당국이 파룬궁에 대한 끝없는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엔샤 일가는 2001년에 캐나다로 이민했다.

1996년 중국 전역에서 파룬따파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천진의 거리와 골목길 곳곳에서 연공을 했다. 많은 조직과 기업은 자체 내에 연공장이 있었고, '100m 마다 연공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 씨의 남편 구왕(顧旺)이 일했던 천진 전기설계연구소에 연공장이 있었다. 구 씨는 곱사등인 회사 동료 마 씨가 연공한 후 30도로 굽은 등이 펴진 것을 보고, 그도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 후 두 달 만에 안면마비가 회복됐다. 당시 사회에서 파룬궁수련의 치유력 덕분에 기적으로 회복된 이야기가 많이 들렸고 또 구 씨가 아내 우엔샤에게 수련을 권했을 때 그녀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우엔샤의 어머니는 1996년 말에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 4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3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고자 했다. 퇴원할 때 의사는 그녀의 어머니가 앞으로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출원할 때 의사는 집식구에게 노인은 많아 3달 살 수 있다고 했다.

출원 후 우엔샤는 친히 모친에게 수의를 구입해 들였다. 우엔샤는 구입하면서 어머니의 상황이 슬펐다. 그때 파룬따파가 생각나서 '어머니께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파룬궁수련을 하지 않았고 파룬궁에 요해가 없었다. 당시 68세인 그녀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앉지도 못했다. 그래서 우 씨는 어머니에게 파룬따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테이프를 틀어드렸다. 셋째 날, 그녀의 어머니

는 앓을 수 있었고, 며칠 후에는 잠시 서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제 1장 공법을 따라하면서 차츰 제 2장과 제 3장 공법도 하게 되었다. 3개월 후 그녀의 어머니가 회복되어 모두 놀랐다!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목격한 우 씨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파룬따파는 정말 평범한 수련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후 그녀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그녀의 위궤양 질병과 신경 관능증등 질병은 6개월 이내에 사라졌다. 그녀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형제, 시댁 가족, 그리고 많은 이웃, 지인, 친구들이 그녀 어머니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고 파룬따파를 수련하게 되었다. 그들 온집안은 수련의 쾌락을 느꼈다.

## ■ 두 번이나 암에서 회복

료녕성 대련시의 한 여성은 두 번이나 암에 걸렸는데 파룬따파 덕분에 기적으로 회복됐다.

처음 그녀가 자궁경부암에 걸렸을 때, 그녀의 이모가 그녀에게 파룬따파 진상자료와 대법 책 등을 주어 읽었는데 대법의 축복을 받아 그녀는 곧 회복되었다.

2022년 1월에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그녀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가 양쪽 폐에 가득 차 있어 의사는 너무 늦어서 수술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이 보존적 치료를 하기 위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다른 치료법을 시도하는 대신 파룬따파를 수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다시 대법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치병 환자처럼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그녀의 친척과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그녀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다. 약을 먹지 않고도 그녀의 상태가 나날이 좋아져 그녀는 자기가 받은 축복에 감사했다. (4면에 계속)

(3 면의 계속)

■ **대법을 믿은 농부, 폐암말기에서 완전히 회복**

우푸텐 (伍福田) 은 호남성 창더 (常德) 시 59 세의 농부다. 2016 년 초부터 매일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기운이 없었다.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참으려 애썼다. 6 월에, 동생들이 병원에 가자고 졸라 마침내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가 4 개월 살 수 있다고 했다.

그 소식에 그는 충격을 받고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진단을 받기 전날 그는 여전히 농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는 그는 치료받을 여유가 없었다.

파룬따파 수련생인 그의 누이가 며칠 후 찾아왔다. 그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외우라고 했다. 진심으로 외우기만 하면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하면서 안심시켰다.

우 씨는 그것이 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아, 누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며칠 후 다른 수련생이 그에게 대법 수련생이 작곡한 노래와 전통문화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플레이어를 줬다. 그렇게 그는 매일 침대에 누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를 외웠는데 몸 상태가 나날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두 달 후 검진하러 병원에 갔다. 의사들은 더는 암세포를 찾을 수 없고 폐에 림프절이 두 곳만 있다고 했다.

한 달 뒤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림프절도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연거푸 “기적! 기적!” 이라고 외쳤다.

■ **조선족 박해소식** ■

**흑룡강성 목단강 조선족 노년 파룬궁 수련생 림춘자의 저축통장이 동결되다**

[ 명후이왕 ] 금년에 79 세인 목단강 조선족 노년 파룬궁 수련생 림춘자는 1999 년에 중공이 파룬궁박해를 시작해 서부터 오늘날까지, 여러차례 불법 감금, 노교,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림춘자 노인은 유가족비 (遺屬費, 노인의 남편은 원 해림 공검법 기관 공작인원으로서 사망한뒤 유가족에게 발급하는 비용) 를 타러 갔다가 저축통장이 동결된 것을 발견했다. 이 얼마안되는 몇백원이라도 노인의 유일한 생활래원이 었다. 80 세 가까운 독거노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2019 년 6 월 25 일, 목단강시 강빈파출소의 민경과 국보경찰 6 명이 림춘자 집에 뛰어들어 불법 집수색하고 대법책 등 물품을 강탈해가면서 며칠후에 가지러 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안 지나서 파출소에 갔을때 근본상 문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2021 년 6 월 10 일, 목단강 공안국은 통일 행동을 취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당일, 강남분국의 국보와 강빈파출소의 3 명 경찰이 또 림춘자의 집에 뛰어들어 대법책과 3 장 대법 사부님의 법신상을 강탈해갔다. 6 월 11 일에 또 서안 분국과 햇불파출소에서 6 명 경찰을 파견해 불법가택수색을 실시해 전날 가져가지 않은 법신상마저 강탈해갔다. 또 2000 원 진상돈과 진상바코드와 호신부를 강탈해갔

다. 그리고 노인을 파출소에 데려가 반날 불법감금한 후 풀어주었다. 약 한달후 서안 분국 경찰은 또 소란했고, 강박으로 노인을 목단강 애민구 검찰원에 데려가 검찰원에서 모함했다. 노인은 검찰원 인원에게 진상을 알리자 그들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후에 그들은 또 노인을 목단강 구치소에 보내려고 했으나 노인의 신체 검사에서 노인의 혈압이 230 이여서 어쩔 수 없이 노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얼마안지나 그들은 또 왔다. 노인을 애민법원으로 데리고 가 불법 심사를 받게했다. 법관은 애민구 법원 형 1 정 정장 장빙빙 (姜冰冰) 이 말했다. 심사전 노인에게 법을 원조 변호사를 찾아줬다. 노인은 말했다. “나는 변호사를 쓰지않겠어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당시 현장의 모든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말하지 않았다. 공소인은 노인에게 3\_4 년 가량 형량을 건의했다. 경찰이 판결서를 가져가려 할때 노인은 조선족이여서 한자로 된 판결서를 알아볼 수 없었다.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도 몰랐기에 한차례 연극은 속히 마무리졌다.



## 전문 통화 빛 받으러 온 '종기'

[ 명후이왕 ] 만약 '병'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사유가 있고 지각이 있으며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람을 알아보고 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아마 농담이거나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수련계에서는 말한다. 다른 공간에서는 모든 물질이 영체이고 생명이 있으며 병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자신을 제한해서 생긴 오해 때문이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주로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생긴 업력(業力) 때문이다.

### ■ 눈썹과 이빨이 모두 있는 '종기'

당나라 승려 지현(知玄)의 속성은 진(陳)이고 법명은 지현(知玄)이었다. 그는 수도 장안에서 '가마라(迦摩羅, 나병)'를 앓고 있는 승려를 만났다. 승려 몸에는 종기가 나고 고약한 악취가 풍겼으며 사람들이 보면 멀리 피했지만 오로지 지현만이 그를 귀찮아하지 않고 돌봤다. 승려가 완쾌된 후에 이별할 때 지현에게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면서 서촉(西蜀) 팽주 다농산(茶隴山)에 가서 소나무 두 그루를 찾으면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 지현은 당 의종(懿宗)의 사랑을 받았다. 의종은 상국사(相國寺)에서 지현의 설법을 듣고 침향보좌도 하사했다. 이어 당 희종(僖宗)은 지현에게 오달국사라는 호를 내렸으니 두 황제의 공양이 융숭하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사의 무릎에 눈썹과 이빨이 모두 있는 종기가 생겼는데 그것에게 식음료를 주면 먹고 마실 수 있었다. 국사가 의사를 찾아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다농산에 올라가 소나무 두 그루를 찾았고 인근에 있던 절에 들어가서 자신이 치료해준 승려를 만났고 그 승려가 당부하는 대로 새벽에 산속 샘물로 씻으니 병이 나았다.

새벽에 국사가 샘물가에 와서 물을 길으려고 할 때 그 인면창이 갑자기 국사에게 말했다. "일단 씻지 마! '서한서(西漢書)'를 읽은 적이 있지?" 국사가 읽은 적이 있다고 하자 인면창이 말했다. "원앙(袁盎)이 조착(晁錯)을 죽인 이야기를 알아야. 네가 바로 그 당시 한나라 우의정 원앙, 나는 바로 좌의정 조착이었지. 그때 나는 억울하게 동시에서 너한테 참살당했어. 몇 세대에 걸쳐 나는 네게 복수하려 했지만, 네가 10 세대에 걸쳐 계속 승려로 태어나 정진하며 계율을 지켜서 너에게 달을 수도 없었고 원수를 갚을 수도 없었지. 하지만 난 지금 타락했어. 황제의 하사로 호사를 누리며

명예와 돈을 탐해서 내가 너에게 올라갈 수가 있었지. 이번에 다행히 빈두로 존자(나병에 걸린 승려로 현신해 지현에게 치료를 받았음)가 삼매의 법수(法水)로 날 씻어서 너와 나의 억울한 빛은 이미 끝났어, 이제부터 널 원수로 여기지 않을 거야."

오달국사는 듣고 급히 물을 떠서 씻었는데 씻을 때 뺏속까지 아파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후 종기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뒤돌아보니 그 소나무는 여전했지만 절과 승려는 자취가 없었다.

이후 오달국사는 더는 산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수행했다. 오달국사는 빈두로 존자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 참법(懺法) 3 권을 썼는데, 삼매의 물로 원업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수참(水懺)'이라고 불렀다. 원한을 품었던 조착도 빈두로 존자의 법수로 씻겨서 마음속 원한을 없애고 초탈해 불법을 얻었으며 수행을 하러 갔다.

### ■ 원한을 선행하자 종양이 저절로 치유

약 2년 전, 샤오린(小林, 가명)의 왼쪽 겨드랑이에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동전 크기 종양이 자랐다. 종양은 약간 딱딱하고 표면이 솟아 나와 꼭대기가 하얗게 변했다. 얼마 후 종양 꼭대기 중간에 또 작은 검은 점이 생겼다. 어느 날, 샤오린은 파룬궁 수련서 '전법륜(轉法輪)'을 공부하면서 이 종양이 역사상 그녀와 무슨 은원(恩怨)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샤오린은 선의로 종양에게 말했다.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며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우주대법에 동화한다. 여기는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니 너는 날 떠나라. 너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해야 한다."

이틀 후, 샤오린은 종양 표면에 계란 크기의 붉은 테두리 선이 볼록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고 그 후 붉은 선 안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저녁에 샤오린은 다시 종양에게 말했다. "너는 이미 2년간 이곳에 있었다. 3일 안에 나를 떠나기 바란다. 네가 나를 떠날 때 네 주위의 나쁜 물질을 모두 가져가거라. 지금 너는 나와 함께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공손히 외워야 한다."

밤 12시, 종양에서 비린내 나는 고름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젓가락 굵기에 길이는 약 3cm 인, 표면이 매끄럽고 속살이 흰 생선 살처럼 생긴 것도 끌어당겨 냈다. 그러자 종양이 훌쩍하게 됐고 하루가 지나니 입구가 막히고 딱지가 앉았으며 약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했다.

샤오린이 말했다. "선(善)은 거대한 힘이다. 모든 원한과 갈등을 풀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선념(善念)을 발하면 사람들은 자비, 따뜻함, 상서로움을 느낄 수 있다."

# 흔비백산의 한막이 나를 철저히 개변했다

[ 밍후이왕 ] 나는 개인기업의 대형 화물차 기사로서 경상적으로 먼길을 떠나곤 했다. 비록 남들보다 월급이 높긴하나 이 일은 아주 고생스럽고 피곤한데다 늘 위험이 따랐다.

나의 어머니는 파룬궁수련생이다. 나는 파룬따파가 그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견증했다. 어머니는 온몸에 병투성이 였으나 돈 한푼도 쓰지 않고 연공하면서 다 나왔다. 따라서 성격도 쾌활하고 명랑해 졌으며 우리집에는 또 예전처럼 화목함과 기쁨으로 가득찼다.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아주 지지했다. 그러나 나는 파룬궁제자들이 말하는 파룬궁의 그런 신기한 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혹은 믿지 않았으며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법의 진상 호신부는 또 계속 몸에 지니고 다녔다.

2020년 6월의 하루 나는 석재료를 가득 실은 긴 차간을 이끌고 화북지역에 들어섰다. 길의 좌측에는 산이있고 우측에는 깊은 벼락이어서 도로상황은 매우 위험했다. 떠난지 얼마안돼 과중 운전인데다 올리막길이어서 아니나다를까 과연 차머리와 차간의 연결부위에서 “딱!” 하는 소리와함께 나는 바로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차간은 힘껏 옆으로 넘어지면서 “꽁!”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밑으로 굴러내려갔다. 나는 꿈쩍도 못하고 눈을 꼭 감고는 죽기를 기다렸다……

얼마후 동정이 사라지자 눈을 떠보니 내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죽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조심스레 차에서 내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한막은 나로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다. 커다란 재중차간은 거꾸로 된채 운전석은 굴러떨어진 차간과 함께 벼락으로 추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벼락끝에 얹어져 있었다. 아니였다라면 나의 목숨은 아마도… 이번 추락사건은 너무나도 과상하고, 불가사이했다! 당시에 나는 단지 과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흔히 빠진 나는 집에 돌아와 이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말했는데 온집식구들은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이때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얘야, 어서 사부님께 절을 올려라, 사부님께서 너의 명을 구해주신거야!” 아무것도 믿지 않던 나의 마음이 진감받아 꿈에

서 깨어난듯 눈물이 찼찰 흘러내렸고 동전에 오염된 영혼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나의 생명의 깊은 곳에서부터 종래로 있어본적이 없던 대법에 대한 경위와 대법사부님께 대한 감은이 솟아올랐다. 나는 진심으로 사부님께 절을 올려 사부님의 명을 구해주신 은덕에 감사드렸다!

## ‘오토바이’보다 더 강한 몸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기 위해 공원에 갔을 때 오랫동안 알던 조경회사 사장을 만났다. 날 보고 매우 흥분한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위험할 때 날 지켜줄 거라고 하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라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다.

“2014년 5월 어느 날 밤, 전 물품을 사러 삼륜차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도로 오르막을 운전하는 동안 다가오던 대형 화물 트럭이 갑자기 절 향해 직진했고 ‘꽁’하는 큰 소리를 내며 삼륜차 뒤의 짐칸을 쳅습니다. 저는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10m 이상 날아가 약 1m 깊이의 콘크리트 배수로에 처박혔어요. 그때 상황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몸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오른팔에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다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삼륜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완전히 못쓰게 됐죠! 제 몸이 ‘테뉴(鐵牛, 중국 오토바이 브랜드)’보다 단단하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매우 운이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다가 지갑 안에서 몇 년 전에 당신이 준 호신부를 봤어요. 저를 지켜준 것이 그 대법 호신부였음을 깨달았어요! 생명을 구하는 호신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호신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건 당신이 대법(파룬따파)을 인정하고 박해진상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